

11·19 전국농민대회를 마치고...

11월 19일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우리농업사수·쌀지키기·농민생존권쟁취 전국 농민대회가 거행되었다.

여의도는 물론 서울 곳곳에는 10만 농민의 함성과 분노가 울려 퍼졌다.

무엇보다도 7개 농민단체가 한마음으로 뭉쳐 농업·농촌·농민의 한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이제 대회는 끝이 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번 대회와 더불어 농민연대를 어떻게 끌어안아야 하느냐 하는 더 중요한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대회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새벽까지 함께 고군분투했던 상황실(전국농업기술자회관 2층 회의실)에는 파견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번 대회를 평가하는 자그마한 자리를 가졌다. 이하에서는 그때 논의되었던 실무자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담아 보고자 한다.

▶ 이종화(전농 정책실장)

그동안 대회준비 하느라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는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평가자료를 준비해 온 대외협력팀부터 간단하게 자체평가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배형택(전농 대외협력국장)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을 시도한 농민들의 경우 사전에 실무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승차요금이나 증편운행 문제 등에 대한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후 대회 준비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충분히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은 전반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대회홍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자봉단(자원봉사단)은 당초 계획보다 조직화가 미흡했고 사전교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13일 대회 때 자봉단 활동을 했던 분들이 많아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자 문제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서는 탄원서 작성을 비롯하여 편지 보내기, 면회 등의 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민수(농민연대 사무국장)

대회 전술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대회전일까지 대회운영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회 이후 거리행진에 대해 사전에 지역과 치밀한 교감이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산개최를 시도한 점, 대열이 여러 방향으로의 행진을 시도했던 점등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술을 운영한 것은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 김관배(한농연 대외협력)

최종적으로 가진 대표자회의로 인해 대회 직전까지 상황실에서 혼란스러웠던 점은 실무자 차원에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전일까지 실무적으로 이미 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자회의에서 상황실장님이나 총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휘승(한농연 대외협력실 차장)

행사·기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행사 및 본행사는 의도했던 대로 공동사회와 빠른진행으로 보다 간결한 행사가 되었으며 전반적인 흐름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도된 상징의식(깃발찢기)과 멘트를 통한 외부인사 소개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경해 열사에 대한 정신계승과 추모의식이 기획단계부터 고민되지 못했고, 분산집회에 따른 도심집회 기획이 부족했던 점, 거리행진경로 확보와 준비 및 정리집회판 준비 등이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일 대회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력 대응활동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진입단계부터 마찰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 여용옥(전여농 사무국장)

저희 정책·선전팀은 상황실 상근자가 행사준비기간동안 원활히 결합하여 활동하지 못해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선전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농민연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새롭게 사이트를 만드는 것보다 더 활용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디오, DVD 등의 교양자료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평가된 자료가 추후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대응 활동에 있어서는 대회기간 중 토론회나 인터뷰 요청 등 기존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보도자료나 성명서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언론대응 활동은 전문지 중에서도 농어민신문이나 농업인신문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간지나 라디오 등에 적극적으로 투고하지 못해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화(전농 정책실장)

각 팀별 평가자료는 추가로 보완·정리해서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대회 총평을 하기 전에 상황실운영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용옥(전여농 사무국장)

무엇보다도 상황실 인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적으로 언론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단체별로 상황실 상근자 파견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참여하는 단체만 참여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회 정치적 기조의 해설과 전파 등의 문제에 있어 혼란이 조성된 측면이 있고 총 7차례에 걸쳐 작성·배포된 공동지침의 경우에도 정확한 책임자 없이 상황에 맞게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김휘승(한농연 대외협력실 차장)

농민연대 상황실과 각 단체 상황실간에 대회 준비·진행경과 등에 대한 일상적 소통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아 농민연대 상황실만 분주하게 운영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종화(전농 정책실장)

상황실에 대한 비판은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던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번 대회에 대한 총평을 간략히 해 주시고 오늘 평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강민수(농민연대 사무국장)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준비기간 동안 농민연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전국 10만여명의 농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이번 농민대회를 통해 일방적인 농업 개방 대세론, 농업축소론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우리농업사수·쌀 지키기·농민생존권 쟁취라는 대회의 내용을 전국민에게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농민운동사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김휘승(한농연 대외협력실 차장)

이번 대회준비 과정을 통하여 지역단위까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농민연대차원의 지역조직이 활성화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민연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체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고, 이후 사업에 있어서는 이 점을 깊이 있게 고려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하면서 사업을 섬세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관배(한농연 대외협력실)

이번 대회를 통해 실무자들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진 평가회의지만 농민연대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자들간의 이러한 공감대가, 각 단체별로도 충분히 공유되어 조직적 차원에서도 농민연대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여용옥(전여농 사무국장)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12월 6일 투쟁까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쌀 재협상 대응과 10대 요구안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어 이번 대회가 승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종화(전농 정책실장)

내년에도 국·내외적인 농업정세 속에서 농민연대의 강화와 공동대응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민연대상황실 평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농연**